

“제조혁신 노하우 전파... AI·그린 전환 등 中企 대응 노력”

중기중앙회-중기부-삼성전자 CEO에 스마트공장 사례 등 소개 총 300여명 참석 제조현장 투어 “스마트 공장에 기대·우려 공존 현장 체험으로 혁신 가능성 확인”



삼성전자가 광주캠퍼스에서 마련한 스마트공장 벤치마킹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여 명이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서 제조혁신 노하우를 배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올해 스마트공장 선정 기업 CEO 등 300여명을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 초청해 제조현장을 벤치마킹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사례를 소개하는 행사를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삼성의 혁신 사례를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제조현장 투어,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 삼성전자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가이드 강연’ 등으로 진행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삼성전자 광주캠퍼스는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생산하고 있다.

2019년 벤치마킹 행사 이후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CEO들을 위해 공장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사례발표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베어링 설계-제조업종 특이인 다품종 소량생산의 한계를 극복한 ‘더보링크’ ▲제철소 쇠물 뽑는 장비 제작 공정방식을 자동화해 연간 생산량이 180% 향상된 ‘베수비우스’ ▲스마트공장을 통해 3세대 용접면을 개발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오토스윙’의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전자 광주캠퍼스 제조현장 투어에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냉장고, 에어컨, 금형, 인쇄회로기판조립, 콤프레셔 제품라인을 둘러보며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시스템 운영, 자동화 설비, 물류 최적화 등 혁신 노하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중앙회 양진희 혁신성장본부장은 “삼성과의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기부, 중기중앙회, 삼성이 ‘원팀’으로 협업하는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범사례로 중소기업의 만족도와 성과가 높다”며 “올해부터 3년간 새롭게 사업이 시작되

는 만큼 AI·그린전환 등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에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삼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형배(광주 광산구) 더불어민주당의원, 조종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안광현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등도 참석했다. 임경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중소기

업회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제조현장에서 삼성의 노하우를 직접 체험해보니 혁신 가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원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삼성은 ‘지능형 공장’으로의 생산현장 고도화, ESG 지원, 지자체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생태계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삼성과 함께 2018년부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1차 지원사업’을 통해 약 2000여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2차 지원사업’에선 중기부와 삼성이 3년간 매년 2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여개 스마트공장의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벤처기업, 韓 중심에 서게 지원 총력” 이노비즈協-기보, 中企 추가지원 맞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기자 상견례 “선택·집중 통해 기업성장 여건 조성” 이달 1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장으로 취임한 강석진 신임 이사장(사진)이 현장 소통, 유관기관 협력, 조직혁신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석진 신임 중진공 이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입기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일반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것도 있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기업 현장 니즈 중심의 지원체계 재설계’를 포함한 4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장’과 관련해 강 이사장은 “이사장 선임 결정 통보를 받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심리적 장벽’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현장’이 아니라 중진공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의 중요성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기업들은 10을 원하는 데 중진공이 그 절반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하지만 기보, 신보 등 여러 유관기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부와 함께 힘을 모으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원하는 것 역시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중기부 산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한때 이사·전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자산 규모가 5조5000억원 정도인 중진공의 부채가 높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선 “24조원 규모의 보증을 깔고 있

다보니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다. 중진공은 자산의 20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하라는 의미다. 한편으론 부채가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보증·융자로) 지원을 많이 한 결과이기도 하다. 부채비율 수준에 대해선 제대로 평가해 봐야 한다. 융자를 더 해주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채권발행을 더 하는 것이 맞다. 또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부채비율은 당연히 낮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직후 ‘조직혁신전담팀’도 새로 꾸렸다. 그는 “중진공이 과거에도 잘해온 부분이 있지만 취임후 이야기한 것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조직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진단팀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활동하고 12월께 조직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며 “초격차 산업이나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이를 위해 조직의 어떤 부분을 강화해 나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혁신기업 수출확대 등 공동추진 이노비즈協-기보, 中企 추가지원 맞손 이노비즈협회와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이노비즈협회와 기보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이노비즈협회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두 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이 기술사업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기술평가등급 모형 활용 ▲협회 추천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IP평가보증, 투자연계 사업화 지원 ▲협회 추천 해외기술 도입 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협회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수출확

대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지난 20년간 기보의 든든한 지원 하에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토양이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공급망은 물론이고 기술개발에 합치는 기업혁신 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이노비즈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공영홈쇼핑,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진행

영광굴비·마른오징어 등 방송 공영홈쇼핑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우리 수산물 판로지원에 나선다. 7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8일 TV홈쇼핑에선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방송을 진행한다.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추석 전 물가안정을 위해 기획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수협 영광굴비’ (오전 9시 20분)와 ‘울릉도 마른 오징어’ (오후 11시 50분)다. 굴비는 마리당 80g 이상의 특장대 상품으로 총 40미를 5만9900원에 판매한다. 울릉도 마른 오징어는 6마리 구성으로 1팩(210g) 당 3마리씩 포장해 4만3900원에 선보인다. 모두 국내산으로 정부비축 수산물인 만큼 시중보다 싸고, ‘동행축제 상생적

립금’ 이벤트에 참여해 미리신청 및 모바일 앱 구매 시 10%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 방송은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중소기업부 주관 ‘황금녘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영라방’도 선보인다. 8일 오후 5시 대구광역시의 유명 전통시장인 ‘칠성진 경명시장’ 현지에서 펼쳐지는 공영라방에선 생생한 전통시장 모습과 함께 다양한 우리 수산물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 빅데이터 활용 ‘업무 혁신’

‘박스리빌딩’ 적용 박스 크기 19% ↓ CJ대한통운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박스 크기를 찾아내고 접착식 라벨을 없애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친환경 효과와 물류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빅데이터 기반의 ‘박스리빌딩’ 기술을 자사 풀필먼트센터에 적용해 배송박스 크기가 평균 1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또 접착식 라벨 대신 박스에 직접 바코드를 표기하는 ‘먹물분사형 바코드’를 통해 코팅라벨 사용량도 4년간 6400만장을 절감했다. 이를 나열한 총면적은 44만8000㎡로 축구장(7140㎡) 63개에 달하는 크기다.

CJ대한통운이 자체 개발한 패키징 기술 ‘박스리빌딩’은 상품별 체적 데이터와 주문정보를 조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크기의 박스를 찾아내 물류 현장에 투입하는 시스템이다.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방지해 친환경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경기 군포센터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곤지암·용인 등 5개 센터로 확대했다. 배송박스 크기가 줄어들어 따라 골판지 사용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빈 공간에 넣는 완충재나 포장테이프 등의 부자재 사용량도 줄어들었다. 운송차량에도 더 많은 박스를 실을 수 있어 1회당 배송 가능한 물량도 늘어나면서 탄소배출량도 감소한다. /김승호 기자